



한국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서

‘현재라는 잣대’ 버리고 ‘미래농업의 변화’ 먼저 수용할 때
농업에 ‘벤티지정신’ 도입, 멋진 변화 이전에 중요한 생존 수단 될 것

■ 민승규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벼랑 끝에 몰린 한국농업

“사람들이/다들 도시로/이사를 가니까/촌은
쓸쓸하다/그러면 촌은 운다/촌아 울지마”

열림원에서 나온 김용택의 산문집 “촌아 울지마” 중에 실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글로써 우리의 농업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UR협상 타결(1994년)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3년 78억달러에서 1997년에는 1백12억달러로 늘었다가 1999에는 IMF 여파로 86억달러에 그쳤으나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농산물 수입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농가수지가 악화되고 결

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자재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상당수 농산물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이다.

지난해 급기야 농민들이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에 나선 정도로 한국 농업은 위기 상황이다. 1999년말 기준으로 전체 농가부채는 25조5천6백억원에 이르며 가구당 부채규모는 1천8백50만원이다.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취약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다. 60년대 이후 GDP대비 농림어업 비중은 38.7%(61년)에서 5.1%(99년)로 줄어들었으며, 식량자급도는 93.9%(65년)에서 29.4%(99년)로 줄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농촌사회가 공동화(空洞化)되었다. 농업·농촌이라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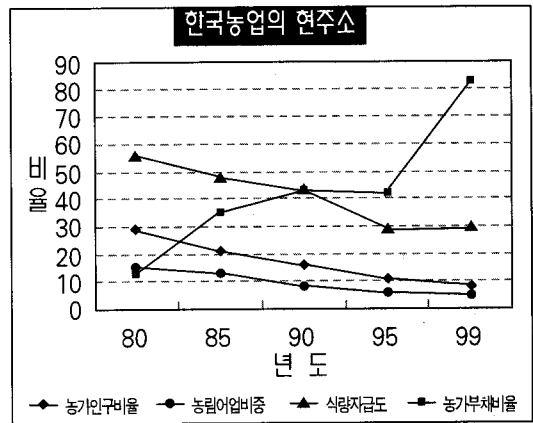


면 왠지 “문제”로서 ‘농업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어렵고, 농촌에는 젊은이도 신부감도 모여들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인 말들만 떠올리게 된다.

茶山 정약용선생은 ‘농사가 다른 것보다 못한 것이 셋이 있는데 높기는 선비(士)보다 못하고 이(利)함은 장사보다 못하며 편하기는 공장(工匠)보다 못하다’ 하면서, 이 세가지 못한 것을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회초리질을 하면서 농사를 권장하여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茶山의 생각은 현재 우리 농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과 같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면 농업의 경쟁력은 되살아 날 리가 없다.

변해야 살아 남는다

현재 우리 농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크게 3가지 이다. 첫째는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고객, 즉 소비자의 요구를 듣기 보다는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둘째 남에게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가 최고라고 자만하며 조언자를 오히려



가르치려 한다. 셋째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과거의 관행에 집착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이 강한 것이 한국농업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사회 각 분야가 지식기반·디지털 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농업부문에 예외가 아니다. 농업분야 역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그리고 희망과 꿈이 있는 21



“

21세기의 화두는 “생명”이다. 농업이 바로 생명·환경·과학과 직결된 산업이다. 새로운 애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세기형 지식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자각과 의지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래 농업의 변화를 남보다 앞서 수용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점을 신속히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다. 현재의 잣대를 가지고 과거에 집착하면 이것은 문제의 악순환만을 가져올 뿐 근본적인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합(合)의 개념이었다. 토지·노동·기술 등을 더했을 때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졌다. 하지만 향후 농업의 경쟁력은 위와 같은 고정적 요소에 지식(정보·아이디어·서비스 등)이 곱해지는 승(承)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농업이 지식·디지털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정부, 농업관련 산업계, 개별 경영체 등 개별주체가 포괄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농업전체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식전략과 더불어 주체들의 개별적인 지식활동은 물론 주체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한 상승효과 도출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농업도 ‘고객, 집중,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농업, 성공가능한 일에 집중하여 핵심역량을 키우

는 농업, 단절된 농업이 아닌 비농업분야의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연결된 농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더욱더 특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시키면서 다른 강점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라고 권한다.

21세기 지식사회에 개인(조직)의 평가는 개인능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곱해져 평가된다. 예를 들면 갑돌이는 개인능력이 80점이고 을돌이는 60점이라고 하면 20세기에는 갑돌이가 더 큰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들 개인능력에 네트워크의 점수가 곱해진다. 갑돌이의 네트워크 점수가 20점이고 을돌이의 네트워크 점수가 40점이라고 하면 갑돌이의 경쟁력은 160점이고 을돌이는 240점이 되어 을돌이의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농업도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 있는 개인 또는 조직과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장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면 새로운 농업 경쟁력이 창출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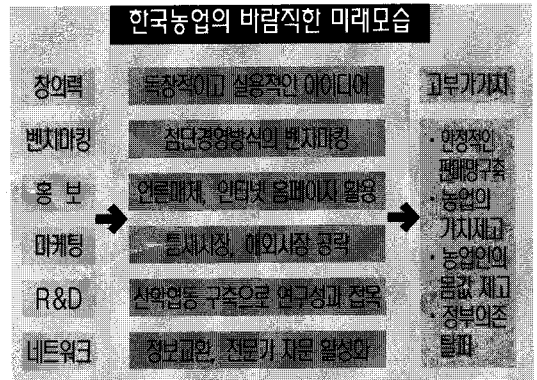
한국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벤처농업

다행히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대의 조류는 농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농업인 개개인이 변화의 기회를 자각하고, 창의력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개성있는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를 창출한다면 농업도 얼마든지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바뀌고 있다. 농업인 역시 지식을 창조, 배분, 활용하는 지식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축적,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한편 공유와 확산을 통해 농업 전체의 가치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이제 농업에도 비즈니스 찬스가 도래했다. 사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능력있는 농가에 있어서 요즘 농업은 흥미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사고방식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있다. 향후 기술혁신 노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농업인은 번영하게 될 것이며, 역으로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의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미 농업분야에 벤처정신을 도입해서 성공한 분야는 인삼초코렛, 청매실, 마늘환, 호접란, 장생도라지, 사이버 팜(cyber farm) 등 사례도 적지 않으며 해외 수출전망도 밝다.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 경영자원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벤처농업의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좋

은 토양으로 바뀔수 있다. 의외로 농업분야에 벤처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은 무궁무진한데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 부터라도 벤처정신에 눈을 돌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농업분야에 벤처라는 의미는 단지 코스닥에 상장해 주가를 올리는 수준과는 다르며 지금까지 생산에만 급급하던 농업분야에 소비자 즉,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변화를 싫어하는 농업계에 디지털경제에 걸맞는 경영과 마케팅능력을 불어넣는 의미이다. 그동안 농업분야가 뒤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영과 마케팅이라고 볼 때 이 분야의 수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정부에 의존하는 농업이 아닌 개개인의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러한 토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벤처 정신이다. 이러한 벤처정신의 도입은 멋진 변화이기에 앞서 우리 농업의 중요한 생존수단이 될 지도 모른다. 21세기의 화두는 "생명"이다. 농업이 바로 생명·환경·과학과 직결된 산업이다. 새로운 애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농의정보**